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 임실서 내일 '문화마실' 개소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역민의 문화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공간 '문화마실'을 임실에 조성, 22일 개소식을 연다.

문화마실 조성은 전북도가 지역 예술가들과 단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우리 동네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자 도내 문화 소외지역 문화예술공간 발굴·육성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했다.

문화마실은 유희공간과 저활용 장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업의 첫 번째 조성지로 임실이 선정됐으며, 전북도와 임실군이 주최하고 재단이 기획·주관했다.

임실군 옛 상월초등학교에 마련된 문화마실 임실은 지역민들의 문화적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일상적 문화 콘텐츠 향유 및 교육체험, 주민이 주체가 되는 커뮤니티 운영에 중점을 두고 조성했다.

전시와 회의, 강연, 커뮤니티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의 역할을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탄생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지역민의 문화 활동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공간 '문화마실'을 임실에 조성, 22일 개소식을 연다.

지역 주민들과 예술가가 관촌면의 식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 꽃 밥상' (가제) 프로젝트, 전시, 커뮤니티 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운영은 임실미협이 맡는다.

재단 이병천 대표이사는 "지역 내 문화예술

공간 발굴로 예술가와 주민들이 자기 터전에서 활동하고 향유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주민들이 마실 가듯 찾아오는 공간이 되고 문화와 예술로 더욱더 풍요로운 마을이 되도록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만나요

2019년 한 해 정읍시민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던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이하 농담)'이 오는 26일 '악작(樂作)'을 주제로 정읍 연지아트홀에서 열린다.

농담은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둘레(이하 둘레)가 추진해 오는 공연이다.

'시민의 삶이 문화'라는 키워드로 새로운 공연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토크 콘서트다. 사회적 오정해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 주제와 취지에 대해 둘레와 공유해 왔고, 그 결과 매회 전석 매진을 기록할 만큼 사랑을 받았다.

이번 악작은 '즐거움을 만든다'와 '음악을 시작하다' 등을 주제로 선정해 2019년 마지막 오정해의 농담을 장식할 예정이다.

안수용 (사)둘레 이사장은 "2019년 한 해 오정해의 농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정읍시민과 관객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올해 마지막 공연인 만큼 다양한 이야기와 감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관람 바랍니다"고 말했다.

토크 콘서트 오정해의 농담 : 악작(樂作)의 티켓예매는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에서 오는 25일까지 예매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 부안예술회관에서 28일 '봉오동전투' 선착순 무료 상영

부안군은 11월 무료영화 상영의 날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3시와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영화 '봉오동전투'를 15세 이상 선착순 무료로 상영한다.

영화 '봉오동전투'는 원신연 감독 작품으로 1920년 6월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 정규군을 유인해 최초의 승리를 이룬 독립군의 전투를 담은 작품이다.

주요 내용은 1919년 3·1운동 이후 봉오동 일대에서 독립군의 무장항쟁이 활발해지면서 일

본은 신식 무기로 무장한 월강추격대를 필두로 독립군 토벌 작전을 시작하고 독립군은 불리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봉오동 지형을 활용하기로 한다. 항일대도를 휘두르는 비범한 칼솜씨의 해철(유해진)과 발 빠른 독립군 분대장 장하(류준열) 그리고 해철의 오른팔이자 날랜 저격수 병구(조우진)는 빛발치는 총탄과 포위망을 뚫고 죽음의 골짜기로 일본군을 유인한다.

계곡과 능선을 넘나들며 귀신같은 움직임과 예측할 수 없는 지략을 펼치는 독립군의 활약

에 일본군은 당황하는데 1920년 6월 역사에 기록된 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 죽음의 골짜기에 묻힌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군 관계자는 "평소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역사적 스토리를 담고 있기에 영화를 보면서 역사를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군민의 신나는 문화생활을 위해 매달 셋째주 목요일을 '무료영화 상영의 날'로 지정하고 무료로 최신영화를 상영하고 있으며 이번 달은 수능시험 및 부안예술회관 공연관계로 일주일 미뤄진 넷째주 목요일에 상영할 예정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뛰면서 즐기는 관광지 투어

23일부터 24일까지 익산~논산 연계하는 '금강권 미션투어' 진행

익산시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 동안 익산~논산을 연계하는 '금강권 미션투어'를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운동하는 아니운서 박지혜가 진행하며 미션지도와 미션웹페이지를 활용해 여행명소에서 주어진 퀴즈를 풀어나가는 방 탈출 콘셉트의 신개념 러닝 트립이다.

투어는 총 2회 진행되며 1회차는 23일 익산편, 2회차는 24일 논산편으로 금강권 역의 근접한 2개 지역을 연계해 각 회차당 60여명 등 총 1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익산편 미션투어 장소는 최근 대한민국 상품대상을 수상한 교도소세트장과 한복

대여 등 전문문화체험이 가능한 함라한옥마을, 젊은층의 포토존 명소인 상당포구 바람개비 길이다.

논산편은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요 촬영지였던 미스터 션샤인 세트장과 개화기로 시간여행을 떠날 수 있는 강경근대문화거리이다.

참가신청은 온라인(http://xcrew.co.kr/gout/38943)을 통해 하면 되며, 참가비는 1인당 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미션투어 사업을 통해 금강권 관광자원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트랜드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 아이들과 함께하는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

가족 뮤지컬 '뚝딱하니 어흥'이 오는 27일 오전 10시와 오후 2시 두 차례에 걸쳐 정읍시예술회관에서 공연한다.

11월 문화가 있는 날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뚝딱하니 어흥'은 전래동화만의 가치와 지혜, 해학을 담은 이야기를 선보이며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뮤지컬이다.

관객들은 꼬마 도깨비 대장 '뚝딱하니'와 함께 사고뭉치 호랑이를 잡으러 떠나는 모험 속에서 겁쟁이 호랑이, 효성 깊은 호랑이, 목심쟁이 호랑이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특히, 어린이 관객들은 극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오브제인 도깨비 방망이를 직접 만들어 공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전래동화에 담긴 재미있는 흥내말과 꾸민말을 노래로 들으면 서 어휘력을 증진하고 권선징악의 교훈을 통해 정서를 함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공연은 2개월 이상이면 정읍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선착순 입장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www.jeongeup.go.kr)를 참고하거나, 전화(539-6413)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